



[국내·해외은행 비교]
‘예대마진’ 안주하다
핀테크 失機
‘금융의 삼성’ 멀었다
03



Economy

코스피	↑	2295.26 (+1.75)	코스닥	↑	775.52 (+5.72)
금리 (국채 3년)	→	2.13 (변동없음)	환율 (원·달러)	↓	1118.70 (-1.50) (7월31일)

박원순 “용산·여의도 통개발” 이후… 자그나면 호가 5000만원 ↑ “강남보다 용·여” 부촌지도 바뀐다

〈용산〉 〈여의도〉

‘2030서울플랜’ 발표에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
매물가 오진 오후 달라
매물회수 등 관망 분위기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래미안첼리투스’.

“어제 호가가 16억원이었던 ‘ㄱ’아파트를 오늘 16억5000만원에 다시 내놨어요. 하루만에 5000만원을 더 올리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용산구 이촌동 A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

서울 용산구 일대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재개발 계획’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다. 개발이 시작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될 것이란 전망에 매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하지만 보유자들은 아파트 매도가격을 올리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추세다.

◆ 주말없는 부동산 중개업소… ‘변동 심해’

지난 7월 29일 일요일 오후에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

었다. 통상 중개업소는 주말에도 문을 열고 하지만 이촌동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내방객이나 전화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중개업소 유리 벽면에 빼곡히 붙어 있는 매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걸음을 멈춘 이들도 자주 눈에 띄었다.

인근 B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 이후 매일 물건을 확인하고 있다”며 “(매물 가격이) 하루가 다르고 오진, 오후가 또 다르다”고 했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여의도를

국제 금융 중심지로 개발하고 용산에 대형 광장을 조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의도·용산 개발’ 청사진을 밝혔다.

여의도는 새로운 업무와 주택지로 바꾸기 위해 ‘여의도 일대 종합적 재구조화 방안(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내놓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여의도 재건축 단지 매매가가 뛰기 시작했다. 재건축 아파트는 호가가 수 억원씩 뛰며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용산역도 마찬가지다. 박 시장은 용산역은 서울역까지 지하화해

MICE(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센터를 들이고 각종 광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계획에 여의도와 용산 일대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도시 계획은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여의도·용산에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권한은 전적으로 서울시장에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에 일대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촌동 C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입김 한 번에 줄줄이 매물건이 보류되고 있다”며 “어제 들어왔던 매물도 오늘 아침에 빠졌다. 변동이 심해서 집주인에게 전화해 아침, 저녁으로 확인할 때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주말 중개업소에서 확인한 아파트 매매 물건들을 30일 오후에 다시 문의하자, 절반 가량이 철회됐거나 계약금이 입금된 상태였다.

〈6면에 계속〉



40도 육박하는 서울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31일 오후,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인 2시에서 3시 사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을 찾은 동남아 관광객이 손 선풍기를 들고 열을 식히고 있다. 이날 광화문에 세워 둔 간이 온도계는 39도를 넘어서 40도를 육박했다.

韓 경기 적신호

최장 ‘마이너스 늪’ 설비투자… 생산도 감소

〈4개월〉

통계청 ‘6월 산업활동동향’

6월 산업생산이 석달 만에 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설비투자 감소세는 18년만에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3월 0.9% 감소에서 4월(1.4%), 5월(0.2%)엔 증가했다가 다시 -로 돌아섰다.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에

서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과 광업이 줄어 전월보다 0.6% 감소했다. 3월 -2.1% 이후 가장 저조한 수치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전자 부품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1.1% 늘었다.

통계청 어운선 산업동향과장은 “생산과 출하가 조정을 받으면서 재고가 늘었다”며 “자동차 수출이 잘 안되다보니 재고가 쌓이지만 반도체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3.5%로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 금융·보험 등이 늘어 0.2% 늘었다.

또 소비 수준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6%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2.8%)는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0%), 의복 등 준내구재(1.4%) 판매는 늘었다. 서비스업과 소비 증가는 월드컵 특수와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을 입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월보다 5.9% 감소, 4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설비투자 감소 폭은 3월 -7.6% 이래 가장 컸다. 설비투자 4개월 연속 감소는 2000년 9~12월 이후로 처음이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모두 감소, 전월보다 4.8% 감소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내수부진·인건비 상승에 BSI, 17개월 만에 최저

한은 ‘7월 BSI·ESI’

미·중 무역분쟁, 내수부진, 인건비 상승 등의 여파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BSI도 동반 하락했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점 100 이하일 경우 경기를 긍정적(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기업경기실사지수(업황BSI) 추이〉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대비
· 전산업	77	79	71	80	75	-5
· 제조업	74	77	78	80	74	-6
대기업	82	82	81	83	77	-6
중소기업	63	70	74	77	72	-5
수출기업	82	83	79	84	81	-3
내수기업	69	74	77	78	71	-7
· 비제조업	79	80	84	80	76	-4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7월 31일 발표한 ‘2018년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7월 전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5포인트로 전월

대비 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2월(75)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올해 3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하다 6월(80) 하락 전환한 뒤로 2개월째 하락세다.

7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BSI는 동반 하락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 대비 6포인트 하락한 74포인트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다. 다음 달 업황전망 BSI(73)도 지난달 전망 대비 7포인트 내렸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6포인트, 중소기업이 5포인트 떨어졌다. 기업 형태별로는 수출기업이 3포인트, 내수기업 7포인트 각각 내렸다.

〈김희주 기자 hj89@〉

삼성, 실적 신기록 주춤 반도체 신화는 계속된다

2분기 영업이익 14.9조원

메모리 부문 실적 견인

IM·디스플레이는 부진



삼성전자가 다소 주춤한 2018년 2·4분기 실적을 31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 58조4800억원, 영업이익 14조 87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000억원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은 3%, 영업이익은 8000억원 줄었다.

2분기 실적을 견인한 요인은 메모리 부문으로 호조를 이어갔다. 하지만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판매가 감소해 최고 실적 경신은 중단됐다.

반도체는 데이터센터와 고용량 스토리지용 제품의 수요 증가로 인해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1X 나노 기반의 64GB 이상 서버DRAM 등 고용량·고부가 제품 판매에 주력한 결과로 제품 경쟁력이 강화됐다.

디스플레이는 플렉시블 OLED 패널의 수요 둔화와 LCD TV 패널의 판매 감소로 인해 실적이 감소했다.

모바일기기(IM) 부문은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주춤한 가운데 갤럭시 S9의 판매가 감소해 실적이 하락했다. 장비 분야인 네트워크에서는 주요 해외 거래선의 LTE 증설투자 확대로 실적이 개선됐다.

소비자가전(CE) 부문은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 특수를 타고 QLED TV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TV 부문 이익은 개선됐지만 생활가전 분야는 에어컨 수요 둔화로 실적이 하락했다.

2분기 원화는 달러 대비 약세였으나 유로·해알 등 기타 통화 대비에 비해선 원화가 부분 강세를 보여 세트 사업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약 4000억원 수준의 환손실이 발생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2분기 시설 투자 규모는 8조원이었다. 사업별로는 반도체 6조1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다. 상반기 누계로는 반도체 13조3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9000억원 등 총 16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안병도 기자 catchrod@〉